

23. <보기>를 참고할 때, (가)의 ㉠~㉣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「방옹시여」는 ‘방출된 늙은이가 남긴 시’라는 의미를 담은 제목으로, 화자는 정계에서 밀려난 후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소박한 은거 생활에 자족감을 나타낸다. 아울러 정치적 권력을 얻고자 상대를 음해하는 비정한 세태와 당쟁으로 인해 어지러운 나라의 모습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.

- ① ‘돌길’을 세상과의 통로라고 볼 때, ㉠은 정계에서 밀려난 후 고립된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② ‘시비’를 외부 세계와 은거지의 경계라고 볼 때, ㉡은 화자 스스로 외부 세계와 단절하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③ ‘해오라기’를 당쟁을 일삼는 사람으로 볼 때, ㉢은 권력을 좇던 자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음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④ ‘같은 물에 있거니’를 임금을 함께 모시는 상황으로 볼 때, ㉣은 당쟁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.
- ⑤ ‘수간모옥’을 소박한 삶의 공간으로 볼 때, ㉤은 현재 생활에 대한 자족감을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24. [A], [B]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[A]는 [B]와 달리 특정 계절을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주변의 경관을 예찬하고 있다.
- ② [A]는 [B]와 달리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여 심리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.
- ③ [B]는 [A]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.
- ④ [B]는 [A]와 달리 의문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.
- ⑤ [B]는 [A]와 달리 열거의 방식을 이용하여 대상과 관련한 다채로운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.

25. <보기>를 바탕으로 (가)~(다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
고전 문학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된다. 첫 번째 양상은 자연을 관념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. 이때 관념은 유교적 가치에 관한 것이며, 자연은 유가적 진퇴(進退)의 한 축인 퇴(退)의 공간, 즉,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 자기를 수양하는 곳으로 나타난다. 두 번째 양상은 자연을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. 이때 자연은 미적 관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.

- ① (가)의 ‘초목이 다 매몰’하거나 ‘풍상이 섞어 칠 때’에 ‘혼자 푸른’ 모습을 한 ‘송죽’은, 유교와 관련한 긍정적 가치를 지닌 자연물로 제시된 것이겠군.
- ② (가)의 ‘서까래 길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울었거나 틀어졌거나’라는 표현은,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표출된 것이겠군.
- ③ (나)의 ‘서책을 쌓아 두고서 ‘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’며 지내는 ‘산중’에서의 생활은, 자연 공간에서 책을 통해 자기를 수양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이겠군.
- ④ (나)의 ‘세사는 구름이라 험하며 ‘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’린다는 언급은, 세속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려는 태도가 담겨 있는 것이겠군.
- ⑤ (다)의 ‘기원 동산’에 ‘혼연히 찾아가서는 온종일 마음 편하게 앉아 꽃구경하는’ 행위는, 자연을 미적 관조의 대상으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겠군.

26. ㉠~㉣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㉠의 숨씨가 가장 모자란 이유는 자연으로부터 충분히 아름다운 빛깔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.
- ② ㉠은 ㉢과 달리 자연으로부터 빛깔을 얻기 위해 육체의 수고로움을 필요로 한다.
- ③ ㉠, ㉡, ㉢보다 ㉣가 나은 이유는 자연의 빛깔을 얻고자 애쓰지 않고서도 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.
- ④ ㉡와 ㉢가 자연의 빛깔을 빌리기 위해 노력한 일은 ㉣에 의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.
- ⑤ ㉣는 ㉡, ㉢와 달리 모조품이 아닌 자연의 진짜 빛깔을 대할 수 있다.